

문화광장



양 건 건축학박사·가우건축대표

제주 근·현대 건축사 정립을 위한 출발선에 서다

최근 제주도립미술관에서 기획한 '제주 근·현대 미술사 조명전: 에펠드 제주'전은 제주의 근·현대 미술사를 정립하기 위한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건축계에도 신선한 자극이 됐다. 제주건축 역사의 정립은 지역적 정체성 모색을 화두로 삼고 있는 건축계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는 2015년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전통건축에서부터 2000년대까지 제주건축의 흐름을 통사적으로 개괄한 '제주건축역사'를 편찬했다. 더불어 이 연

구는 전통건축 시대 이후 근·현대 시기의 건축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건축적 시대상과 시대사조를 규명해 근·현대 건축사를 정립하는 후속 연구과제를 제기했다.

그런데 '제주의 근·현대 건축사 정립'이라는 이 장대한 과업에 누가 쉽게 다가설 수 있겠는가? 다행히 건축 관련 단체에서 여러 의미 있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특히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는 아카이브 위원회를 발족해, 일제 강점기 이후 시대별로 제주에서 활동했던 건축가들의 흔적을 추적하고 있다. 축적된 아카이브의 시대별 단면은 곧 시대정신과 시대사조를 도출하는 근거가 되므로, 아카이빙은 역사 정립의 출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근·현대를 조명하는 시간적 범위가 왜 일제 강점기부터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이는 '2016년 제주

국제건축포럼'의 부대 행사인 '제주 건축가 12인전' 전시 도록의 서문을 쓴 박길룡(전 국민대 교수)의 세대 구분을 인용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 그는 일제 강점기에 이룸 모를 건축가를 1세대로, 일제 강점기에 건축교육을 받은 건축가들을 2세대로, 5·60년대 육지부에서 대학 교육을 받고 귀향한 건축가 그룹을 3세대로 구분하고, 그 후 10년 단위의 세대 구분을 하고 있다. 박 교수의 이러한 시각은 일제 강점기가 가슴 아픈 역사이지만 도시에 누적된 시간 층을 소거할 수 없는 역사적 입장일 것이다.

이렇게 제주건축가회의 아카이빙을 위한 항해는 일제 강점기에서부터 시작했다. 제주의 원도심은 1915년 조선총독부령으로 도제(島制)가 시작되면서 급격히 일본의 건축으로 치환된다. 그런데 이 건

축들의 도면은 파악되지만 건축가는 좀처럼 추적되지 않는다. 단지 1930년대 중반 중추원 자해 의원의 설계자가 당시 전남도청 회계과 토목 기수였던 '호리우치 히라(堀内 平)'으로 확인되고, 식산 은행은 당시 금융 시설의 대부분을 설계했던 '나카무라 요시헤이(中村 興資 平)'가 관계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할 뿐이다.

이들의 아카이빙을 통해 1920년대 일본 건축계의 근대건축운동이었던 표현주의적 세션(cession)의 영향이 유입됐는지, 더 나아가 해방 후 1950년대의 제주건축으로 전개돼 근대건축의 여명을 열었는지 밝히고자 했던 연구계획은 미로에 들어선 듯하다. 하지만 이 미로에서 새로운 길을 하나씩 헤쳐 나가는 제주 건축계의 도전은 계속 될 것이다.

사설

여성친화도시 제주, 마을 이장은 단 1명

제주 172개 마을 중 여성 이장은 단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의 2024년 정책 개선 권고 사항으로 제주도가 올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해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통장 성별 분리 통계에 따르면 이·통장 57명 중 여성 이장은 단 1명이다. 2000년에 지역 최초로 여성 민선 이장이 선출된 이후 큰 변화가 없었다.

도내 읍면의 이장 172명(제주시 96, 서귀포시 76) 중 여성 이장은 한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5명(애월리, 귀덕3리, 금능리, 동일2리, 대림리)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퇴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평균은 10%였다. 동 지역 여성 통장비율(39%)과도 대조를 보이고 있다. 여성 통장은 전체 57명 중 229명이다. 여성친화도시가 무색하다. 여성들이 부녀회 등 마을회

행사에서 중심적인 일꾼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마을의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는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마을의 의사결정권과 여성 대표성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바뀌고 있는데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이에 따라 도내 여성단체 주도로 2019년 '성평등마을 조성 사업'을 시작해 성평등마을 규약 표준 조항을 마련하고 공론화 작업을 벌였다.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마을규약(항약) 개정 논의를 이어 왔다. 지금부터 성평등마을 사업의 연착륙을 통해 여성들이 마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여성이 주체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각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금성호 침몰 당시 조치의무 않고 떠나다니

지난달 8일 제주해상에서 침몰한 부산선적 135금성호의 실종자 수색이 장기화되면서 가족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당시 사고로 승선원 27명(한국인 16명, 인도네시아인 11명) 중 현재까지 4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고 10명이 실종상태에 있다. 실종자 가족들은 애가 타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해경은 실종자 수색과 함께 사고 원인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추정 단계지만 평소보다 많은 어획물이 금성호가 복원력을 상실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해경의 조사과정에서 사고 당시 선단 중 가까이 있던 운반선 한 척이 신고 및 구조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경은 A선장 B씨를 금성호 침몰시

인명구조를 위한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A씨는 당시 금성호가 복원력을 잃고 빠르게 전복되는 것을 보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어획물 위판을 위해 부산으로 향한 것으로 파악됐다. 육상과 달리 해상에서의 선박 사고는 여건상 대응하기가 어렵고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 자칫 골든타임을 놓쳐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십상이어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때문에 사고선박과 가까이 있는 선박은 조난을 인지했을 경우 구조 조치의무를 다해야 한다. 관련법에 인명구조를 위한 조치 의무를 두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해경은 실종자 수색과 함께 조치의무 위반을 비롯 사고 원인을 하루속히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열린마당

거북목을 바로잡는 '4하라'



윤 미나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을 증가시켜 디스크에 악영향을 미친다. 허리를 펴고 고개를 뒤로 젖히는 동작을 자주해주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흉추를 펴라'다. 허리가 구부정한 체로는 아무리 스트레칭을 하고 경추의 신전을 유지하더라도 올바른 자세가 만들어질 수 없다. 흉추의 정렬이 고르지 못하면 경추의 정렬도 바를 수 없다.

세 번째는 '견가와 달리기를 하라'다. 견가와 달리기를 하면 발이 지면에 닿을 때마다 충격이 디스크 전반에 자극을 줘 디스크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마지막은 '본인만의 루틴을 만들어라'다. 일정시간 모니터를 보면서 잠시 쉬는 시간에는 신전운동을 하고, 점심시간에는 걷는 시간을 갖는 등 자신만의 경추 건강을 위한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4하라'를 실천하다보면 균형있는 신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거북목, 목디스크는 하루종일 앉아 있는 직장인에게는 흔한 고질병이다. 필자도 하루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민원 업무를 하다 보면 어깨와 목이 심하게 결리곤 한다. 거북목, 목디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서도 서울대학교병원의 정선근 교수가 제시한 '4하라' (4가지 방법을 실천하라)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4하라 중 첫째는 '신전 동작을 열심히 하라'다. 하루종일 고개를 숙이는 동작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는 경추가 견뎌야 하는 하중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내년 첫 한라산 야간산행 예약 조기 마감

예약사이트 열자마자 '마비' 투명 페트병 배출제 홍보

○...2025년 1월 1일 을사년 새해 첫 일출을 한라산 정상에서 보기 위해 2일 오전 9시부터 이뤄진 한라산 야간산행에 따른 예약 사이트에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한때 마비 사태에 이어 예약도 조기 마감되는 등 여전히 인기.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이날 예약 사이트 오픈과 동시에 야간산행 예약을 위해 1만명 이상이 해당 사이트에 한꺼번에 접속을 시도하며 한때 접속장애 등이 발생.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측은 매년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며 서버 용량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등의 사전 조치를 취했으나 올해도 접속자의 폭주로 인한 홈페이지 마비 사태를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반응. 백국탁기자

○...서귀포시는 폐기물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고품질 재생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연말까지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제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

이는 제도 시행 4년 차를 맞아 시민 인식 확산과 참여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단독 주택, 상가 밀집 지역 게시판을 활용해 별도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할 계획.

서귀포시는 "2022년부터 지난 3년간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통해 980t을 수집했고 직접 매각해 5억원의 수익을 거뒀다"며 "투명 페트병을 선별해 가공할 경우 의류, 신발, 가방 등 가치가 높은 재활용 제품으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바른 분리배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 진선희기자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을2리 용암동굴계 계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립JK약백도라지연구소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기준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도백미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향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국내통신공사
열린 기술 습득 기술인력 개발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개장신고서 무료 작성 대행
장례지도사 강봉호
010-5254-6661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장 의사
616-08-85402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발효기(폼포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완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펠렛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 : 010-3119-3820, 010-3692-8420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